

대구여성가족 브리핑

DAEGU WOMEN & FAMILY FOUNDATION BRIEFING

발행인 정일선 발행처 대구여성가족재단 기획편집 정희경·류영임 연구원



대구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험하다! 여자 청소년이 우울감, 스트레스 더 취약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는 논의 자체가 터부시 되었던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다.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던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향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므로 정책 개입의 중요한 의제로 간주해야 한다.

대구 청소년(만9-2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3%이며 그중 10대 청소년은 9.3%이다. 하지만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상담의 이용건수는 40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의 상승폭이 전국에 비해 약 1.6배 높아 대구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센터별 특성을 살린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만19-24세의 정신건강상담 이용률이 작년 대비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여자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여·남·중·고등학생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상담 유형의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여자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은 26.6%로 가장 높았으며, 성 상담도 2.0%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상담환경의 변화도 정책 개입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면상담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건수가 작년 대비 62.1%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비대면상담 체계의 미흡 등의 문제로 수혜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시대라는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비하려면 비대면 상담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브리핑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파악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정신건강 이슈 선제적 대응, 여자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 청소년 지원사업의 유형화 및 통합화, 비대면 상담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류영임 /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원

CONTENTS

대구 청소년 및 지원센터 현황 2p

대구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4p

대구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현황 6p

정책제언 8p

01 대구 청소년 및 지원 센터 현황

대구 청소년(만9-24세)은 대구 인구 중 17.3%를 차지함. 그 중 10대 청소년은 대구 인구의 9.3%이지만, 연령별 정신건강상담 이용은 2번째로 많으며 대구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의 상승폭은 전국 대비 약 1.6배 높음. 대구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으나 센터별로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대상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

청소년이란

-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함. 본 브리핑은 청소년 기본법의 기준을 따름
- 2019년 만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422,796명으로 대구인구의 17.3%이며 그 중 남성은 52.7%(222,835명), 여성은 47.3%(199,961명)로 남성이 더 많음. 10대 청소년(만9-18세)은 대구 인구의 9.3%를 차지함

대구 연령별 청소년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9)

(단위: 명)



※ 만9-12세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13-15세 중학교 취학연령, 만16-18세는 고등학교 취학연령, 만19-24세는 후기 청소년에 해당함

10대 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이용건수 40대에 이어 2번째로 높아

-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령별 상담이용건수는 40대 3,850건, 10대 3,715건, 30대 3,562건 등의 순으로 20대의 이용건수가 가장 낮음. 반면 10대는 40대에 이어 2번째로 상담이용건수가 높음. 특히 10대 여성은 2,077건으로 남성 대비 약 1.3배 많음. 인구대비 이용률은 여성 1.8%, 남성 1.3%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중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단계로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함.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관련 이슈는 생애 전반의 건강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연령별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이용건수

자료: 대구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내부자료(2019)

(단위: 건)



※ 2-8월 기준

대구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상승폭, 전국보다 약 1.6배 높아

- 전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0년에서 2015년 8.4%p 감소했다가 2019년에 소폭 증가함. 대구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도 2010년에서 2015년 8.3%p 감소하고 2019년에 다소 증가하여 전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임
- 전국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010년에서 2015년 대폭 감소하고, 2019년에 4.8%p 증가함. 대구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010년에서 2015년에 전국 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7.2%p 상승하여 전국 우울감 경험률 대비 약 1.6배 높은 증가세를 보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비교

자료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0-2019) 원자료 분석
(단위 : %)



우울감 경험률 변화 비교

자료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0-2019) 원자료 분석
(단위 : %)



청소년 정신건강, 대상에 따른 차별 지원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만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함. Wee센터는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교 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Wee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클래스·센터는 전국 공통의 기본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각 센터는 인터넷 중독·주의력장애 등에 집중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이 유사한 경향이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젠더폭력 증가 등, 최신 이슈 변화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대구 센터별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

자료 : 각 센터별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지원
-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사업
- 기본사업 : 정신건강증진교육, 정신건강상담(온·오프라인, 이동),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자살예방교육, 치료비 지원, 심리검사(우울, 인터넷중독, ADHD)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여성가족부 지원
- 만9세~24세 청소년대상 사업
- 기본 사업 : 개인 및 집단상담, 위기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인터넷중독 프로그램 등



Wee 센터

- 교육부 지원
- 전국 최초의 대학병원형 센터 운영을 통한 진단-상담-치료 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기본 사업 : 단위 학교 및 센터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대상 상담 및 심리검사(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주의력장애검사) 제공

02 대구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대구 청소년의 자살률은 20대 초반 청소년이 10대 청소년보다 높음. 자살 생각률은 여자 중학생이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스트레스는 여자 청소년 2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으며 우울감도 3명 중 1명이 경험하여 남자 청소년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남. 따라서 연령별·성별로 차별화 된 지원이 필요함

청소년 자살률, 20대 초반 청소년이 10대 청소년보다 높아

- 대구의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019년 기준 십만명당 28.7명으로 여성 16.5명, 남성 41.2명임. 청소년의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 지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만15-19세 십만명당 11.0명에서 만20-24세 22.3명으로 약 2.0배 증가함. 여자 청소년의 자살률은 만20-24세 11.5명, 만15-19세 9.8명, 만10-14세 5.8명임. 만10-14세 청소년의 자살률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만20-24세 연령은 남성의 자살률이 약 1.9배 더 높음
- 그러나 자살 관련 프로그램이 노후화되어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또한 후기 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임. 따라서 자살과 관련하여 성별·연령 등과 같은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이슈 발굴이 필요함

대구 청소년 연령별 자살률

자료 : 통계청, 사망인원통계(2019)
(단위 : 만)



주 : 사망률은 인구 십만명당/연령은 5세 단위별로 제공되고 있음



여자 중학생의 자살 생각률 16.5%, 고등학생보다 높아

- 대구 여자 청소년의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2010년 21.5%에서 2015년 9.3%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15.8%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남자 청소년은 2010년 14.5%로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8.3%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9년 8.7%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여자 청소년의 자살 생각률은 중학생 16.5%, 고등학생 16.0%이며 남자는 중학생 9.0%, 고등학생 8.3%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에 비해 약 1.8배 높음. 특히, 여자 중학생의 자살률은 중·고등학생 중 가장 높게 나타남

대구 청소년 자살 생각률 변화

자료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0-2019) 원자료 분석
(단위 : %)



대구 청소년 학교급별 자살 생각률(2019)

자료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9) 원자료 분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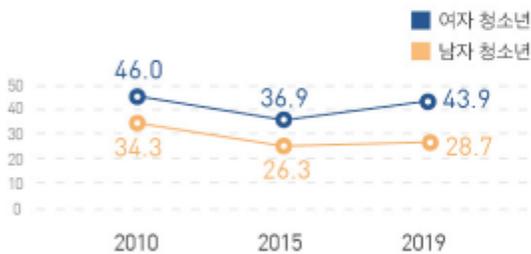


여자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49.8%로 남자보다 높아

- 대구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0년에서 2015년 다소 감소했다가 2019년 다시 증가함. 특히 여자 청소년의 증가율이 더 큼.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0년 46.0%에서 2015년 36.9%로 9.1%p 감소하였다가 2019년 43.9%로 다시 7.0%p 증가함. 남자 청소년도 유사한 변화를 보이지만 인지율은 여자 청소년보다 낮음
- 2019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자의 경우 고등학생(49.8%)이 중학생(38.5%)보다 11.3%p 높았으며, 남자도 고등학생(25.4%)이 중학생(28.7%)보다 높음. 여자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남

대구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자료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0-2019) 원자료 분석
(단위 : %)



대구 청소년 학교급별 스트레스 인지율(2019)

자료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9) 원자료 분석
(단위 : %)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많이'의 합

대구 여자 청소년 3명 중 1명 우울감 경험, 남자보다 약 1.7배 많아

- 대구 여자 청소년의 최근 12개월 동안 우울감 경험률은 2010년 40.5%에서 2015년 20.7%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2019년 32.0%로 다시 11.3%p 증가함. 남자 청소년도 유사한 변화를 보이지만 우울감 경험률은 여자 청소년이 약 1.7배 더 많음
- 2019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고등학생이 더 높음.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30.8%, 고등학교 33.2%로 고등학생이 2.4%p 더 높았으며 남자 청소년도 고등학교가 2.9%p 더 높게 나타남

대구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변화

자료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0-2019) 원자료 분석
(단위 : %)



대구 청소년 학교급별 우울감 경험률(2019)

자료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9) 원자료 분석
(단위 : %)



03 대구 청소년 정신건강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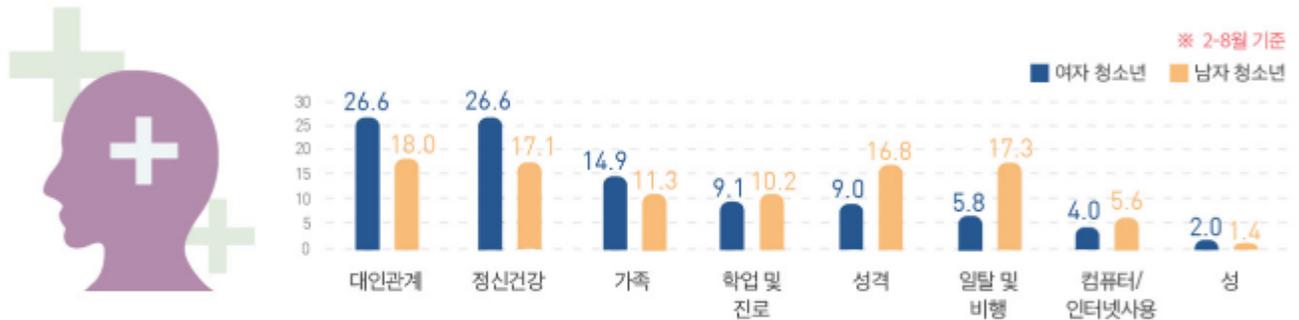
여자와남자 청소년 간 상담유형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등의 최신 이슈를 반영한 선제적 접근이 요구됨. 한편, 만 19-24세 여자 청소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대면상담을 대신하는 비대면상담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시스템 전환이 필요함

성별에 따라 상담유형 달라, 차별화된 지원 필요

- 여자 청소년은 대인관계(26.6%), 정신건강(26.6%), 가족(14.9%) 등의 순이며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을 이유로 상담을 받는 비중이 높았음. 남자 청소년은 대인관계(18.0%), 일탈 및 비행(17.3%), 정신건강(17.1%), 성격(16.8%) 순으로, 여자와 상담유형의 차이가 존재함
- 한편,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상담은 남자 청소년(5.6%)이 더 많은 반면 성 관련 상담은 여자 청소년(2.0%)이 더 많음. 이처럼 상담유형의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성별 개인상담 유형

자료 :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 청소년과 내부자료(2020)
(단위 : %)



만19~24세 여자 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률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배 증가

- 대구 청소년의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만19-24세 청소년의 이용률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만 19세 미만은 오히려 감소함. 특히 만19-24세 여자 청소년의 이용률 3.7%로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큼
- 만19-24세는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가 중첩되는 시기로, 학령기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의 심도가 깊어질 수 있음.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 진입의 어려움이 정신건강 호소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소년 시기별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연령별 이용률 변화

자료 : 대구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내부자료(2019-2020)
(단위 : %)



비대면 시대, 상담 시스템 전환 필요

- 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9년 2월에서 8월의 청소년 상담건수는 18,653건으로, 6월의 상담건수가 3,345건으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7월(3,225건), 5월(3,020건), 8월(2,990건), 4월(2,639건) 등의 순임
-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7,072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2.1% 감소함. 이는 대면 상담의 전면 중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월별 상담을 살펴보면 특히 코로나19가 대구에서 급증한 3~5월의 상담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함. 비교적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한 6월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적극적으로 비대면 상담 서비스 활용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상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함

대구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월별 상담 변화

자료: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 청소년과 내부자료(2019-2020)

(단위: 건수)



대구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 개입 필요

-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은 이후 생애 전반의 건강을 위한 조기 개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요구됨.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개입을 위해 기존의 정신건강 취약요인 및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위험요인을 파악한 선제적 정신건강 증진 정책이 이뤄져야 함
- 청소년 집단 내에서 성별·연령별로 정신건강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별·연령별 조건에 따른 개입이 필요함. 예를 들어, 여자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대구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별 사업은 센터 유형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유형,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각 사업의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센터 간 연계가 필요함
- 대면 상담에서 비대면 상담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문제, 시스템구축 미흡, 비언어적 소통 불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그러나 위드코로나 시대라는 시대적 대응을 위해 비대면 상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정책 개입 및 체계적인 비대면 상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04 정책제언

실태

제안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성 개선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대구 청소년의 우울감, 자살률 꾸준한 증가
- 센터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확대 필요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문화적 장벽

- 센터 특성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 유형화 및 프로그램 개발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상담요원 구축 및 양성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성화

청소년 정신건강 이슈
선제적 대응

- 인터넷중독, ADHD, 자살 등에 집중된 정신건강 관련 이슈의 획일화
- 온·오프라인 상의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증가 등과 같은 이슈 변화에 따른 지원 부족

- 주기적인 청소년 정신건강 연구를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의 이슈 변화에 대한 실태 분석
- 이슈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발굴

여자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사업

- 여자 청소년의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 청소년의 성별·연령별 취약성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

- 여자 청소년의 연령별 특성 등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요인 연구 지원
- 여자 청소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발굴

청소년 지원사업의
유형화 및 통합화

-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 야기
- 센터별 상이한 형태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 산발적인 정보 제공 및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보 부재

- 센터의 유형별, 수탁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 연계 및 지원
- 공공·민간 등 유관센터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대구지역 청소년 정신건강 특성화 기관 운영

비대면 시대에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19로 대면 상담 중단에 따른 상담 이용률 감소
- 각종 제약으로 대면 상담에 비해 낮은 비대면 상담 이용률
-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한 청소년 대응 매뉴얼, 교육 등 부족

- 온라인 게시판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체계 재정비 및 홍보 활성화 도모
- 위기 대응에 대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 역량강화 및 이용자 보호자 이용 교육
- 비대면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지원